



김홍재 지휘자의 광주시향

‘합창’으로

〈베토벤 교향곡 9번〉

만나세요

11월 1일부터 지휘봉 ... 12월 27일 문예회관·31일 문화전당 취임 연주

차기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 지휘자로 김홍재 현 울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가 내정되면서 향후 광주시립교향악단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개월간 국내외 지휘자를 대상으로 신입 지휘자를 물색해 온 광주문예회관은 김 지휘자가 현재 울산시향을 맡고 있는 점을 감안,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해 왔다.

16일 광주시향 상임지휘자 청빙위원회가 김 지휘자를 인사권자인 광주시장에게 단수 추천하고 17일 계약을 완료하게 되면서 선임 작업이 최종 마무리 됐다.

김지휘자는 울산시향과 계약이 끝나는 오는 11월 1일부터 광주시향 지휘봉을 잡게 된다. 역대 광주시향 지휘자 중 가장 높은 개런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 10회 공연, 80일 체류가 조건이다.

취임 연주회는 오는 12월 27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다.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이 레퍼토리로 12월 3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야음악회에서도 똑같은 레퍼토리를 선보이게 된다.

김 지휘자는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온 인물로도 유명하다. 1954년 일본 호고현에서 태어난 그는 오랫동안 ‘무국적 조선인의 삶’을 살아왔다. 조선민족학교를 졸업하고 도호대학 음대에서 지휘를 전공한 그는 오자와 세이지를 사사했으며 1978년 도쿄 시타필과의 특별 연주회로 데뷔한 뒤 1979년에는 평양에서 조선국립교향악단을 지휘했다.

1989년에는 독일에서 윤이상을 1년간 사사했으며 1990년 평양 범민족통일음악회에서 조선국립교향악단과 윤이상의

광주시향 역대 최고의 개런티

일본 출생 무국적 조선인 생활

오자와 세이지·윤이상에 배워

곡을 공연하기도 했다.

클래식 이외에도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있는 그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수많은 영화 OST를 지휘했으며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을 작곡한 히사이시 조의 음악 프로듀서로도 활동했다. 지난해에는 한국과 일본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 창단 20주년 기념 공연을 지휘하기도 했다.

지난 2005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김 지휘자는 울산시향을 9년간 맡아 100회에 달하는 공연을 지휘했으며 캐나다와 미국 카네기홀 초청공연, UN평화 콘서트 등 국제무대 연주회를 통해 지방 교향악단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울산시향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약 400여곡이 넘는 방대한 레퍼토리를 갖고 있는 그는 북한 작곡가 최석환의 ‘아리랑 판타지’, 윤이상 곡 ‘광주여 영원하라’ 등 한국인의 정서와 광주 정신을 대표하는 곡들을 특별히 애착을 갖고 연주해 왔다.

김 지휘자는 광주시향과 몇차례 인연이 있다. 지난 2013년 5월 바그너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등을 함께 연주하며 첫 호흡을 맞춘 김 지휘자와 교향악단은 올해 도쿄 공연을 함께했다.

지난 6월 30일 도쿄 예술극장에서 열린 광주시향 40주년 기념 음악회에 객원으로 참여한 김 지휘자는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번’ 등을 연주, 호평을 받았으며 일본 공연 전에는 광주문예회관에서 공연을 가졌다. 김 지휘자는 당시 이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재일교포 아내와 함께 1주일간 머물며 ‘광주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휘자는 단원들의 의사가 반영돼 선임된 첫번째 지휘자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지휘자 선정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을 택했다. 공개 모집,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지휘자를 위촉하던 방식 대신 단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청빙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회관측은 문예예술회관 노조와의 단체 협약에 따라 교향악단과 시 추천 인사 각각 3명씩 모두 6명으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단원 추천으로 상임지휘자 후보에 오른 사람은 국내외 모두 7명. 이후 단원들 1, 2차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인 김홍재 지휘자와 러시아 출신 디아디오우라 니콜라이가 청빙위원회에 추천됐다. 청빙위원회에서도 김 지휘자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오고, 니콜라이가 기존 스케줄 등으로 포기 의사를 밝혔에 따라 회관측은 위원회 의견대로 김 지휘자와 위촉 조건 등을 논의해왔다.

광주문예회관 양호섭 관장은 “좋은 지휘자를 모셔오기 위해 단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김지휘자와 계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며 “새로운 지휘자와 함께 광주시향이 재도약하는 기반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정유정

조정래

한국 소설의 젊은 미래 정유정

해외에 알리고픈 작가 조정래

엑스24 온라인 투표

정유정 작가가 ‘한국 소설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로 선정됐다. 이로써 최근 출간한 ‘종의 기원’으로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정 작가에 대한 독자들의 사랑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인터넷 서점 엑스24가 지난달 13일부터 약 한 달여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된 온라인 투표 결과에서 나타났다. 정 작가는 전체 투표자 8만1534명 중 2만2106표(8.1%)를 얻으며 1위로 뽑혔다.

2위는 1만7445표(6.4%)를 획득한 박하익 작가가 차지했으며, 구병모 작가가 1만5604표(5.7%)로 그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투표 결과 정유정 작가를 비롯해 장르를 불문하고 서사력이 뛰어난 작품을 선보인 작가들이 순위권에 올라왔다.

한편 해외에 알리고픈 한국 작가로는 최근 ‘풀꽃도 꽃이다’를 출간한 조정래 작가가 2만7388표(10%)로 1위에 올랐다. 이정명 작가가 2만1555표(7.9%)로 2위, 김려령 작가가 1만9917표(7.3%)로 3위를 기록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목에 사는 사람들 ‘목취회원전’

24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문인화 전통 계승·발전에 힘쓰고 있는 목취회(회장 김귀채)가 ‘제9회 목취회원전’을 18~24일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연다.

지난 1993년 결성된 목취회는 ‘목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문인화가 역량 한상운(금남미술관장) 선생 문화생 모임이다. 넓게는 한상운 선생이 사사한 금봉 박행보 선생의 작품세계를 잇고 있다. 이번 회원전에는 김귀채 회장을 비롯해 고경숙·김성애·김세린·김양숙·김은중·문연봉·문지훈·박인숙·위오남·신미정·왕일심·오현주·이지숙·정규화 회원이 참여한다. 한상운 선생도 찬조 출품한다.

회원들은 작품 60여점을 전시하며 지난 1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인다. 김회장은 연못에서 개구리, 접지리가 정경



김귀채 작 ‘정다운 연못’

개 어울리고 있는 ‘정다운 연못’을 전시한다. 한국서예대전 초대작가로 활동 중인 새암 김은중 회원은 ‘그리고 바라보다’를 통해 여백미를 선사한다. 한상운 선생은 작품 ‘갯잎소리 차와 춤추다’를 선보이며 제자들을 응원한다.

회원전은 9월11~30일 광주롯데갤러리에서도 열린다. 문의 010-6620-567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주원과 함께 하는 여름 발레 여행

20일 문화전당예술극장 극장2

정상급 무용수 등 출연 무료공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 이하 ACC)은 ‘김주원과 함께 하는 여름 발레 여행’을 20일 오후 5시 예술극장 극장2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지난 7월초부터 진행된 ACC시민아카데미 ‘김주원의 서머 발레 스쿨’의 수강생들과 국내외 정상급 무용수들이 함께 한다.

공연에 참가하는 발레 꿈나무로는 김지유, 박소원, 박소정, 오유빈, 이재원, 이재은, 임채연 등 7명으로 ‘디아나&악테온’, ‘에스메랄다’ 등을 선보인다.

또 광주시립발레단과 국내외 무용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민서, 김민영, 김경애, 허요완, 구윤지, 송관석, 임예선,



보그단, 김정하, 윤전일 등이 학생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무대에 오른다. 레퍼토리는 ‘돈키호테’, ‘지젤’, ‘포지션’, ‘해적’ 등이다.

피날레 무대는 광주시립발레단과 전

망이 공동제작한 ‘봄의 제전G’의 하이라이트 장면이다. 무료 공연. ACC 홈페이지(www.acc.go.kr)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1899-55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서 읽고 싶은 책 100선

광주 공공도서관에 추천하세요

광주시민이 사서 읽고 싶은 책은 어떤 책일까?

광주시립도서관은 전국 공공도서관 가운데 처음으로 관내 공공도서관과 협력해 ‘시민이 사서 읽고 싶은 책 100선’ 사업을 추진한다.

‘시민이 사서 읽고 싶은 책 100선’ 사업은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 100권의 책을 선정 후, 도서관이 구입 비치해 책 읽기를 권장하는 독서진흥운동이다. 추천 기간은 내달 30일까지이며 시민 누구나 광주시립공공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도서관을 방문해 추천하면 된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2015년 도서실 태조사에서 광주시민의 ‘연간 독서량’과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며 “광주지역 21개 공공도서관이 협력해 독서진흥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간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 062-383-4987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

NPL 물건

NO	사건번호	물건
1	광주 2015타경 11371	모델
2	광주 2015타경 17416	근린상가
3	순천 2015타경 14423	근린생활주택
4	목포 2015타경 1551	오피스텔(주거)
5	목포 2015타경 8910[1][2]	단독주택
6	순천 2014타경 9356	근린상가
7	순천 2015타경 14058	근린상가
8	순천 2015타경 15976	근린생활주택
9	목포 2015타경 10570 [1][2][3]	근린상가
10	목포 2015타경 9821	근린상가
11	목포 2015타경 12278	아파트

믿음이라는 대부 금융사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등록번호 2016-광주서구-0021 서구청 경제과 360-7162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 062-382-4987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79번길